



백두대간 종주기 제5보

광전재료과 화공사무관 최월영

5월 2째주 : 경북 상주의 큰재에서 출발하여 백학산을 거쳐 신의터재까지(22km)

<아직까지는 비를 만나지 않은 기분 좋은 날씨의 연속>

나른한 봄날의 장막을 덮는 5월10일 오후 11시 오늘도 거인산악회의 제7차 대간팀을 대운 서울고려관광 버스는 동대문운동장역 8번 출구를 출발하여 서초구청을 경유하고 천안터를 태워 오늘의 목적지인 큰재에 무사히 도착한다.

버스속에서 이구대장님왈 오늘의 종주코스는 산행으로 따지면 가장 재미없는 코스이지만 또 다른 재미를 찾으면 가장 재미있는 코스가 될 것이며 산행 소요시간 8시간 정도 될 것이라고 한다.

이구대장은 새벽 4시 30분을 출발시간이라고 하면서 대원들의 출발을 늦추려고 하지만 4시부터 대원들은 마루금을 향하여 전진하기 위하여 폐교옆을 오르는데 이구대장의 명령이 떨어진다.

선두 진행 중지! 대장님 명령없이 산행을 시작하

였으니 명령 불복종으로 그 자리에 10분간 대기, 출발 신호와 함께 시계를 보니 4시 20분, 10분 일찍 출발이다.

봄날 밤의 날씨답게 짧은 소매위로 아직까지는 냉기가 흐른다.

오늘의 코스는 고도 300m와 500m를 번갈아 가는 평탄한 코스라 모두가 느긋하게 전진하는 자세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봄 기운을 만끽한다.

새벽 5시 여명이 밝아 오면서 헤드랜턴을 끄고 전날 내린 비로 낙엽이 젖은 오솔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증장천왕의 수다를 들으면서 백학산을 향하여 전진한다.

505고지에서 잠시 목을 축이고 백학산에 오르니 먼저 도착한 삼천왕이 만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인천의 다문천왕이 가져온 복분자를 한잔하면서 오늘의 안전산행을 다지고 즐거운 산행이 되기를 빌어본다.

지난 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베낭에 담아온 1.5리터 물병 2개, 0.5리터 물병 3개, 베지밀, 소주 등의 무게

를 따져 보니 물 종류의 무게만 약 5kg이나 된다. 그런데 오늘은 구간도 짧고 완만하면서 나무숲을 지나 는 구간이 많아 물이 남을 것을 생각하니 다음 일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 또 한번 확인한다.

백학산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지기재를 향하여 출발하다 보니 대간길은 농로와 인삼밭 등으로 이어 지고 지기재에 도착하니 비가오면 좌측으로는 금강으로 우측으로는 낙동강으로 물이 흘러 간다는 팻말이 보여 우리가 가고 있는 대간 길이 이제는 금강과 낙동 강을 나누는 산마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중간 중간 얼려온 맥주를 마시면서 음주산행을 하고, 6월에 있을 지리산 종주 계획을 이야기하고, 7월 4째주 및 8월 첫째주 대간 일정이 없는 날 청계산에서 광고산까지 종주하자고 약속을 한다.

웃으며 떠들며 지나가는 8시간이 지나가고 사천왕 은 신의터재에 도착하니 이구대장이 찌개백반을 준비 해 놓고 기다리신다. 산행 후에 먹는 이구대장의 김치 찌개는 정말 산행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 주고 귀경하 는 버스에서 달콤한 잠을 청하는 데 손색이 없다.

다음 종주는 이번 코스보다 조금 길고 힘이 들것 이라는 이구대장의 설명과 함께 마지막 구간에 속리산 자락에 접어들면 시원한 물이 우리를 반길 것이라고 한다.

5월 4째주 : 신의터재에서 화령재를 거쳐 충북 보은의 갈령까지 24km

<폭풍우를 헤치고 나아가는 대간길>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2003년 5월 24일 토요일 저녁 9시 40분 집사람의 눈총을 뒤로하고 사천왕이 기다리는 동대문운동장역을 향하여 마음 바쁜 발걸음을 옮긴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기예보에서는 비 소식이 없었던 만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는 당일의 일기 예보에 맞추어 우의랑 배낭 덮개 등 날씨에 맞추어 장비 및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동대문운동장역에 도착하니 이구대장님이 여전히 반가이 맞아주시고 먼저 온 천왕 및 대간팀들과 서로 의 안부를 교환하면서 서로 격려를 보낸다. 이구대장 님의 오늘의 산행 설명과 함께 오늘도 우리를 태운 서울고려관광 버스는 비오는 서울을 뒤로하고 고속도로 위를 숨가쁘게 달린다.

동대문운동장역 8번 출구는 거인산악회 백두대간 7 차 종주팀중 전철을 타고 오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으로 밤에는 가장 오기는 사람이 적은 통로 이다.

천안을 거쳐 상주의 신의터재에 도착하니 새벽 3 시, 4시 30분에 산행을 시작 할 것이라는 전갈을 받고 비가 그치기를 빌면서 잠시 눈을 붙인다.

4시 30분 버스 내부에 조명이 켜지고 잠에서 덜 깬 멤버들의 투덜거림을 귀가로 흘리면서 창밖을 보니 비가 제법 세차게 뿌리고 있다. 바지 위에 우의를 걸 치고 방풍복 상의를 입으면서 산행중에 비가 그쳐 주기를 빌어본다.

비내리는 어둠속의 신의터재 마루금을 더듬어 올라 오늘의 산행을 시작한다.

우의며 걸쳐 입고 걷는 발걸음 속에서 다른 때 같으면 처음 시작 시 여기 저기에서 어제 저녁에 못다한 안부를 확인하곤 하지만 오늘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오로지 앞서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따라 묵묵히 비오는 대간 능선을 행군한다.

날은 밝아 오면서 고도가 높아 지고 빗줄기도 굵어지면서 바람도 세어진다.

오늘의 산행은 비로서 맞이하고 비로써 접어야 할 것 같은 예감을 머리에 안고 그나마 비를 피할 수 있다는 화령재 고개의 정자를 향하여 부지런히 걸음을 옮긴다.

우의 내부에서는 땀이 나오고 외부로는 비가 흐르면서 등산화 내부로 조금씩 습기와 땀으로 양말이 젖어가는 느낌이 축축하다. 백두대간 시작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수중 산행은 앞으로의 고행을 위한 준비라 자위해 본다.

산행 시작 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휴식 없는 3시간이 지나가니 속에서는 음식물의 공급을 고대하고 있건만 정자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허긴 안내문에는 화령재 고개까지 소요시간 5시간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니 3시간 걸음 후 정자를 기대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하길 30분 후 드디어 정자가 보이고 사천왕은 서둘러 아침 먹을 준비에 돌입한다. 여전히 빗발은 굵고 바람이 정자를 휘감지만 그래도 버너에 불을 붙여 라면을 끓이며 오늘 산행에서 모처럼만에 웃음이 묻어 나온다.

오늘도 아침을 먹고 보니 선발대는 다 출발하고 중발대가 도착하면서 방 빼라고 야단이다.

중발대의 눈치를 무릅쓰고 아침을 넉넉하게 채우고 봉황산을 향하여 빠르해진 발걸음을 옮긴다.

이젠 신발속은 웅덩이가 되어 움직일 때마다 속에서는 땀물이 흘러 나오고 이상한 마찰음이 기분을 상하게 한다. 계곡을 따라 상승하는 바람 소리가 사천왕의 기를 꺾을 듯이 드세고 비는 그칠 기운이 없는 폭풍우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앞길을 방해한다. 그래도 우리는 갈끼다!

아침 식사 후 우리 보다 먼저 출발한 의리없는 몇 팀을 제치고 봉황산에 올라 서니 사방이 비안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비가 잠시 뜸해진 틈을 기회로 삼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비오는 날 먹는 반 녹은 맥주 맛을 아시나요? 비가 오는 날에는 음주산행 검문이 없네요.

봉황산에서 급경사 구간을 내려 앉아 비재로 내려오니 혼자서 처량하게 선발대중 한 분이 철사다리에 걸터 앉아 초코렛을 먹고 계시면서 쉬어 갈 것을 권하고 내친 김에 옆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늘의 갈딱 고개인 갈령을 향하여 전진. 그런데 어찌 초반부터 능선이 만만치가 않네요.

비재는 나는 새의 형국이라 하여 비조(飛鳥)재, 비조령이라 불렀으나 최근에 와서 비재라 이름이 굳어졌다.

암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길을 찾는 산 나그네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오르 막 내리 막 헤메기 1시간여 갈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짜증이 나오기 시작한다. 암룡 지대 여러 개를 지나 헬기장에 오르니 갈령인지 갈령삼거리 인지가 보이지

시작한다. 오늘의 산행을 마감하기 위한 마지막 걸음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점심식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마음은 벌써 달려가고 있다.

<오늘은 상주 소재 저수지 및 폭포를 소개합니다.>

○ 상판저수지

백두대간상인 큰재~개터재 능선 서쪽을 위치한 상판저수지는 79년 12월 준공됐는데, 상주시 공성면 우하리와 효곡리에 걸쳐 있다. 저수면적 79.1ha, 최대수심 19.7m로 물리면적은 983ha에 이른다. 잉어, 붕어가 많이 잡히고 특히 겨울철에는 빙어가 많이 잡히는 곳이다.

○ 낙화담

상주시 화동면 판곡리에 위치한 낙화담(落花潭)은 원래 1,500여 평이나 되는 큰 못이었지만 지금은 150여 평 남짓한 작은 못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못 가운데 작은 동산을 만들고 그 동산 위에 수백 년 묵은 노송이 서 있는 등 옛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노송 옆에는 노산 이은상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이 못은 옛날 판곡 마을의 안산(案山)인 속리산 줄기의 백화산이 화성(火星)을 띄고 있다는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그 화기를 중화시켜야 한다고 믿는 마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못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임진란 때 김준신이란 사람이 상주성에서 왜적을 많이 죽이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왜병이 판곡리에 침입했을 때 많은 부녀자들이 투신자살하면서 낙화담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한다.

○ 못제

비재와 갈령 삼거리 사이 백두대간 상에 있는 고원습지로, 넓이는 500~600평 정도 되고, 장마철이 아니면 물이 거의 없다. 못제에는 전설이 흐르고 있다.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이 대궐터산에 성을 쌓고 보은에 있는 삼년산성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황충 장군과 싸울 때마다 연전연승하자 황충 장군은 견훤이 이기는 비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부하를 염탐시켰다.

그 결과 견훤이 이곳 못제에서 목욕만 하면 없던 힘도 저절로 생겨 승승장구한다는 사실과 견훤이 지령이 자손으로 지령이는 소금물에 약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황충 장군은 부하를 시켜 못제에 소금 300석을 몰래 풀었다.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견훤은 못제에서 목욕을 하고 난 뒤 힘을 잃고 말았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황충 장군이 견훤에게 공격을 퍼부은 결과 승리를 얻어내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설로 보아 당시 물이 풍부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 금란정과 장각폭포

장각폭포는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경북학생야영장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폭포로서 천황봉에서 흘러내린 옥수가 6m 높이로 떨어진다. 폭포 위에 있는 금란정에 올라 늘 수량이 풍부하고 검푸른 빛깔을 띠는 소와 폭포를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